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23】

2012 9. 7.

## 한·러 경제교류 활성화 대책

### 목 차

I. 러시아의 경제정책 변화 .....	1
II. 한·러 경제협력 분야 및 과제 .....	3
III.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투자 전략 .....	8

### 국별조사실

작성: 팀 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확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koreaexim.go.kr



■ 러시아는 2011년 12월 WTO 가입타결(2012년 7월 의회 비준)과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시장 개방과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 하면서 러시아 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됨. 이에 러시아의 경제 정책 변화, 한·러 경제협력 분야 및 과제 등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및 투자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함.

## I. 러시아의 경제정책 변화

### 1. 푸틴 재집권 이후 경제정책 방향

#### □ 경제현대화 정책 이후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 개혁 추진

- 2009년 10월, 당시 푸틴 총리는 **경제현대화 정책**을 발표하고, 원유·가스 등 에너지 경제의존도 탈피, 낙후된 지역경제 개발 등을 추진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으나, 사실상 러시아 정치·경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푸틴 당시 총리가 주도하여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함.
  - 러시아 경제현대화 정책은 **에너지 효율화**(신연료 개발, 전력망 현대화, 스마트 그리드, 고효율 LED 조명 등), **원자력, 우주 및 위성통신, 의료·바이오**(진단 장비 및 의약품 포함), **IT**(에너지-전력망-교통-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IT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할 목적으로 추진됨.
-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취임**으로 제3기(2012~18년) 푸틴 정부가 출범함. 특히, 푸틴 정부는 **혁신 및 R&D 강화, 인프라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10년 이내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계획을 수립함.
  - 푸틴 정부는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기술 집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하이테크 및 테크놀로지형(나노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IT 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추진함.



-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육성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모스크바 건설계획에 따른 혁신도시(스콜코보 (Skolkovo) 지역 등)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 효율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낮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정책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확대 등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함.
- 선진국의 평균 1/3 수준인 러시아의 노동생산성을 향후 10년간 2배 이상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하이테크 관련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 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배가할 계획임.

**<표 1> 러시아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f
5.2	-7.8	4.3	4.3	4.0

자료: IMF 및 World Bank.

## 2. WTO 가입 등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 □ 2011년 말 WTO 가입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기대

**<표 2> 러시아의 WTO 가입 경위**

일자	주요 내용
1993. 6	GATT 가입 신청
1995. 7	WTO 가입협상 시작 (1998년 가입협상 재개)
2004~2006	양자 협상 타결 (EU, 중국, 한국 및 미국)
2011. 10	조지아, 스위스 중재안 수용
2011. 11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 러시아 가입패키지 승인
2011. 12	제8차 WTO 각료회의, 러시아 가입 결정
2012. 7	러시아 의회 비준 및 대통령 서명 (공식 확정)
2012. 8	러시아 WTO 가입(156번째 회원국) 발효

주: 각종 자료 종합.



- 2011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 가입이 결정되었으며, 2012년 7월에는 러시아 하원의 비준이 완료됨(비준 30일 이후 정식 회원국으로 발효).
  -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효율성 증대로 향후 10년간 GDP 규모가 11%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및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세관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 예측가능성 제고, 일관성 개선 등이 기대됨.
  - 외국인투자 유입 및 대외개방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및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II. 한-러 경제협력 분야 및 과제

### 1. 러시아내 잠재적 투자대상 분야

#### □ 자동차산업(Automotive Industries): 내수시장 겨냥

- 러시아는 1억 4,150만의 인구(세계 9위, 유럽 1위)를 보유한 대국으로서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러시아 GDP가 1조 8,578억 달러(세계 9위권)이고, 1인당 GNI가 9,910달러로서 세계은행 분류에 의해 상위 중소득국에 해당됨.
- 지난 수년간 자동차 판매 증가 등 러시아 국민의 구매력 및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보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PWC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러시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65만 대로 독일(163만 대)을 제치고 유럽 내 최대 자동차 판매시장(연중 303만대로 사상 최고치 기록)으로 부상한 바 있고,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2014년까지 러시아가 또 다시 유럽 내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함.



- WTO 가입으로 러시아 정부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의 30%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수입관세 인하의 내수진작 효과 기대).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산업의 러시아 현지투자 유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자동차 관련 수출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됨.

#### □ 소비재산업(Consumer Products): 소비패턴 부합

-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고도 경제성장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중산층 확대 등으로 소비패턴의 서구화(고가상품 지출증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인구의 7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 도시지역의 구매력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력평가(PPP) 기준<sup>1)</sup>으로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가구가 1천만을 넘는 등 중산층의 급증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됨.
- WTO 가입으로 유통 등 서비스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인 러시아는 대부분의 소비재를 유럽, 중국, 터키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재 산업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동 분야의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할 만함.

#### □ 자원개발사업(Resource Sector):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수요 증가

- 러시아는 부존자원이 풍부해 원유, 천연가스, 광물, 목재 등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자원민족주의 경향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 2011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1,027만 배럴/일(세계 시장 점유율 12%), 천연가스 생산량은 6,297억 m<sup>3</sup>(점유율 22%) 수준임.
-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은 서시베리아와 볼가·우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서시베리아 지역이 원유 생산량의 3분의 2, 볼가·우랄지역이 4분의 1을 차지함. 그러나 일부 대형 유전이 성숙기를 지나 고갈과 질 저하 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2009년 1월) 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1) 러시아 전체 평균치는 2011년 기준 16,852달러에 달함.



러시아 정부는 발트해와 흑해를 경유하는 가스관<sup>2)</sup> 건설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수출물량을 줄이는 한편,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대한 에너지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 연해주 지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자원개발의 축이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3)</sup>.
- 2007년 러시아 에너지·산업부는 동부 가스개발계획을 수립,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지역에 천연가스의 통합적인 생산, 운송 및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

## 2. 한-러 경제협력 추진과제

### □ 우리 정부의 대 러시아 경제협력 방안 수립

<표 3> 러시아 WTO 가입 계기 한-러 경제협력 추진과제

추진전략	핵심 추진과제
① 주요 국책사업 진출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효율화사업(전력망 현대화, LED 수출 등) <input type="checkbox"/> 의료 현대화 사업(의료기관 진출지역 선정 등) <input type="checkbox"/> IT 정보화 구축사업(전자정부, IT 시스템 등) <input type="checkbox"/> 건설·인프라 사업(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 등)
② 핵심 산업협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분야(나노펀드 확대, 스킨코보 진출 등)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자원 분야(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 협력) <input type="checkbox"/> 농수산 분야(극동지역 농수산 진출 및 협력 등)
③ 물류산업 진출 확대	<input type="checkbox"/> 북극항로 등 물류망 개척(북극지역 자원개발 목적) <input type="checkbox"/> 물류환경 개선사업(철도·항만·항공 수송 확대)
④ 협력 지원인프라 확충	<input type="checkbox"/> BEPA 등 제도기반 구축(지재권, 통관 협력강화 등) <input type="checkbox"/> 정보·금융지원 체계 정비(기업·은행·정부간 협력)

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 2012. 7. 16.

2) 러시아 서북부지역에서 발트해를 지나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스트림(Nord Stream) 가스관(연간 550억 m<sup>3</sup>를 북유럽 지역 가스공급, 2012년 말 완공예정), 또 흑해연안에서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노선과 크로아티아에서 터키로 연결되는 노선인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연간 630억 m<sup>3</sup>를 남유럽 지역 가스공급, 2015년 완공예정) 등

3)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 수출의 80%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 양국간 크고 작은 분쟁으로 러시아의 가스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기본방향)** 2011년 말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대 러시아 교역 및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주요 대체시장**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됨.
- 2012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러시아 주요 **국책사업 진출, 핵심 산업협력 강화, 물류산업 진출 확대 및 협력 지원인프라 확충**을 선정함(<표 3> 참조).
  -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 건설 및 인프라, 기초과학 등 주요 산업과 항만 및 철도 등의 물류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추진전략 설정

#### □ 추진전략별 대 러시아 경제협력 핵심 추진과제 선정

- 우리나라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사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협력을 확대할 계획 (**러시아 주요 국책사업 진출**)
  - LED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 절감 기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2020년 기한 2,850억 달러 투자계획)에 적극 진출<sup>4)</sup>**
  -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의 보건 및 의료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감안하여 보건 및 의료 분야 협력 확대 등 **의료 현대화 사업 진출<sup>5)</sup>**
  - 전자정부, IT 제품 및 연계 시스템 등 **IT 분야 협력 강화<sup>6)</sup>**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는 등 **건설 및 인프라 사업 진출<sup>7)</sup>**

4) 러시아는 2009년 에너지절감 및 사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을 제정한 이후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 40% (2007년 사용량 기준) 감소를 목표로 9조 5천억 루블(2,850억 달러) 투자계획  
 5) 러시아는 2013년까지 8천개의 의료시설 개보수, 1,400개 기종의 의료기기 10만개 구입, 병원설비 및 진단치료 프로그램 현대화 등에 총 4,600억 루블(138억 달러) 투자계획  
 6) 2009년 기준 GDP의 1%이던 IT 부문의 비중을 2020년까지 5% 수준으로 향상시킬 목표로 전자정부 및 정보화 사회 구축사업을 위해 매년 1,230억 루블(37억 달러) 투입계획  
 7)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을 위해 “극동 장기발전전략 2025”을 수립(2009년)하고, 인프라 및 플랜트 시설 건설사업도 활발히 추진



- 기초과학, 자원 등 러시아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러시아의 핵심 산업협력 강화)**
  - 기초과학 분야는 우리나라의 상용·응용기술과 호혜적인 협력구도 구축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진출<sup>8)</sup>**
  - 천연가스, 석유 및 광물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sup>9)</sup>**
  -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농수산 협력 강화<sup>10)</sup>**
- 항로개발, 항만, 철도, 항공 등 주요 물류분야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참여  
**강화 (물류산업 진출 확대)**
  - 운송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북극항로 개발 등 신규 물류망을 개척**하고 극동항만 개발사업 등 적극 참여
  - 항공 공급력을 확충하고 고속철 건설 등 러시아가 추진 중인 **물류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심화에 대비하여 한-러 경제 동반자협정 체결, 지속적인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적재산권 및 통관 분야의 양자 협력 강화,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및 컨설팅 등 지원 확대 (**협력 지원인프라 확충**)
  -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시장, 법인 설립, 법률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 강화**
  -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러시아의 주요 발주사업 수주지원을 위한 **수출금융<sup>11)</sup> 및 무역보험<sup>12)</sup> 지원 확대**

8) 러시아는 국책사업 중 하나로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스킨코보 혁신센터(Skolkovo Innovation Center)를 조성 (36억 달러)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중임.

9)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82%에 달해 수입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율도 10%로 낮아 협력 가능성 잠재

10)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면적의 약 6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진출 기업의 90%가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수산 진출 및 협력 필요성 증대

11) 주력수출 품목의 현지판매 확대를 위해 수은-러시아은행간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수입자(기업) 등에 대출을 통해 우리나라 물품 수입을 늘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확대 지원

12) IT, 전자제품 등의 러시아 내수시장을 겨냥한 무역보험 지원규모 확대



### III.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투자 전략

#### 1. WTO 가입으로 러시아 수출 및 투자여건 호전 활용

##### □ 러시아의 수입관세 인하효과 기대

-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 **상품 수입관세(평균)**를 현행 10.0%에서 7.8%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이중 공산품은 평균 9.5%에서 7.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투자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IT 및 가전제품, 합성수지의 경우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합의된 최종양허세율(평균)은 각각 자동차는 15%, 자동차부품은 최대 10%, 합성수지는 6.5% 수준인데 비해, 컴퓨터 및 무선전화기는 3년 이내 완전 폐지될 예정임.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품목별 관세 실행세율: 자동차 30%, 자동차부품 최대 15%, 합성수지 최대 10%, TV 부품 10%, 컴퓨터 5.4%, 무선전화기 5%
- 따라서,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수입관세 인하로 우리나라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품목은 **TV 부품, 컴퓨터 및 무선전화기 등 ICT 제품**으로 요약됨.

##### □ 한-러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 1990년 양국간 수교 이후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과거 20년간 110배 이상 증가(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3위 교역상대국)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교역규모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992년 0.12%에서 2011년 1.96%로 상승하였고, 1992년 1억 9천만 달러에서 2011년 212억 달러로 증가함.
- 교역규모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소강국면을 보이다가 이후 2009년까지 급증추세를 나타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 러시아 투자도 위축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비중은 1993년 0.002%(3백만 달러), 2005년 0.5%(3,472만 달러), 2010년 1.38%(3억 3,399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11년에는 9,767만 달러로 감소함(2012년 6월말 누계기준: 19억 337만 달러).
- 양국간 수교 이후 경제교류 실적은 급증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세계 9위 및 15위 경제대국인 러시아 및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현재의 경제협력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투자 실적은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1.9%(2011년 연중 기준), 투자실적의 1.0%(2011년 말 누계 기준)에 불과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경제협력 부진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언어장벽, 러시아의 높은 행정장벽 및 복잡한 세제, 산업인프라 미비 등으로 요약됨.

**<표 4> 한-러 교역규모 및 투자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1~6
수 출(한→러)	4,194	7,760	10,305	5,515
수 입(러→한)	5,789	9,899	10,852	5,250
해외직접투자(한→러)	428	334	98	60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수출입은행.

## 2. 우리나라의 러시아 IT시장 진출전략

### □ 과학기술 분야 및 IT 정보화 구축 관련 사업 진출전략 수립

- 2012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상정된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및 IT 정보화 구축사업 진출 확대 등이 제시됨에 따라 IT 등의 산업진출의 호기가 마련됨.<sup>13)</sup>

13) 러시아의 기초 과학기술력과 우리나라의 응용기술력을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나노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진출을 위해 구성된 나노펀드<sup>14)</sup> 규모를 2012년 10월 1천억 이상으로 확대 (**공동펀드 확대**)
- 스콜코보 진출을 위한 양국간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 기반 구축 (**스콜코보 혁신센터 진출**)<sup>15)</sup>
- 우주항공, 원자력 등 러시아 강점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러시아에 진출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 협력 증개, 과학기술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수요 발굴 등 수행 (**네트워크 및 연구협력 강화**)<sup>16)</sup>
- IT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전자정부, IT 제품(LED조명,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가전제품 등) 및 IT 시스템(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대 러시아 진출 확대 (**IT 정보화 구축 사업 진출**)

### <우리기업의 러시아 IT 산업에 대한 투자집중 필요성>

#### 1. 러시아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정책 부합

러시아의 과도한 에너지산업 경제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산업인 원유·가스개발 관련 분야보다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IT 분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부응 필요

#### 2. 러시아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 대응

러시아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 등으로 소비패턴이 서구형으로 발전하고 있어 자동차, 유통산업 등의 소비재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기 진출해 있으며, 우리 기업이 대외 경쟁력이 있는 IT 분야의 진출여력 풍부

## □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육성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 제3기 푸틴 정부가 출범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IT 등의

14) RSUNANO(나노분야 투자전문 러시아 국영기업으로 러시아내 나노기업간 합병으로 2007년 설립)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공동으로 2012년 2월, 720억 규모로 공동펀드 기조성(RUSNANO와 KIAT는 2011년 6월 MOU 체결)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콜코보재단간 협력 MOU 체결(2011년 6월), 스톨코보 혁신도시법 제정('10.9월)

16)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및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양국 공동 과학기술협력 이행 기관으로 지정



**제조업과 하이테크(나노, 화학 및 소재 등) 관련 산업 등이 협력 가능한 유망 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IT 강국인 우리나라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스콜코보 등의 혁신지역 클러스터 및 특별경제지역 등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스콜코보 혁신도시 연구개발단지 투자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부가가치세, 재산세, 토지세, 임차료,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해외우수인력 취업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러시아는 과학기술 잠재력을 기업과 접목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산학연구, 기술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함(우리나라의 상용화 기술 및 마케팅 능력 결합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 2010년 11월, 러시아 경제현대화 포럼 기간중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IT 기업의 스콜코보 연구개발단지 투자를 적극 희망함.

**<표 5> 러시아의 소콜코보 연구개발단지 개황**

		주요 내용
목	적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초현대식 과학기술센터(테크노파크)로서 러시아 경제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위	치	모스크바 서쪽 20km 방향
건	설	2012년 후반기 시작
예	산	36억 달러(1,105억 루블)
연구	분야	우주 및 항공, 의료장비 및 제약, 에너지 효율화, 정보통신, 원자력
투자	혜택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10년간 면세 혜택, 정부물품 구매시 자격 요건 완화 등 특권 부여

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 2012. 7. 16.

- 러시아는 2012년 9월 8~9일 APEC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대외개방 확대와 더불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국제행사 개최지역의 도로, 철도 및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한 상거래 활성화 등을 계기로 IT 산업에 대한 수요(교통인프라 구축시스템 등)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 대 러시아 금융지원 연계 확충

- 러시아 현지기업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IT 산업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한국수출입은행 등)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8월, 한국수출입은행은 Sberbank<sup>17)</sup>(러시아 최대 국영저축은행)과 투스팀복합금융<sup>18)</sup> 신용공여한도를 기존 2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Alfa-Bank(러시아 최대 민간은행)과는 무역거래 리파이낸스 약정<sup>19)</sup>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8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여 독자적 상생발전프로그램인 **글로벌 PaSS프로그램**<sup>20)</sup>을 해외진출 기업에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함.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팀 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17) 스페르은행은 1841년에 설립된 러시아 최대 국영 상업은행으로 러시아 금융시장 대출의 33%, 예금의 48%를 점유하고 있음(러시아 은행의 자산비중은 국영은행 57%, 민간상업은행 30%, 외국계은행 13% 수준).  
18) 수은이 해외 전대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면, 해외 은행은 한도 내에서 우리기업이나 우리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임.  
19) 수은은 우리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러시아 현지 업체에 대해 별도의 한도 없이 수출 거래건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약정을 체결함.  
20) 2011년 12월에 본격 가동되어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6월, 현대자동차와 동반 진출 협력업체와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